

기아차 녹색기업 반납후 악취민원 급증

광주공장 생산량 늘리려 2013년 자진 포기

3년새 5건→29건...주민들 “창문도 못 연다” 하소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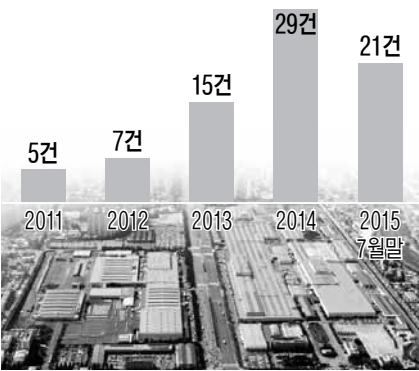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이 친환경 사업장임을 인증하는 ‘녹색기업 지정서’를 자진 반납했다. 최근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 대한 악취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점과 연관지어 해석하는 시각이 제기되는 가운데, 친환경적 기업 정책이 우선 순위에서 밀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전세계적으로 친환경 경영을 화두로 삼는 글로벌 기업이 늘어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24일 광주시 서구에 따르면 기아차 광주공장(광천동) 주변에서 페인트 냄새와 같은 심한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지난달 현재 21건이 접수됐다. 광명하이츠아파트, 부건아파트 등 기아차 공장 주변에 사는 아파트 입주 등 민원인들은 악취로 눈이 따갑고 두통에 시달릴 뿐 아니라 여름에도 창문을 열지 못할 정도라는 하소연을 하고 있다.

기아차 광주공장 악취 민원은 지난 ▲2011년 5건 ▲2012년 7건 ▲2013년 15건 ▲2014년 29건 ▲2015년(7월 말) 21건으로 매년 늘고 있고, 지난해 7월에는 악취방지법에 따른 기준치 초과 사실도 적발됐다. 기아차 광주공장의 경우 악취 민원이 두 자릿수로 늘어난 2013년 2월 각종 지도·점검 면제 등 혜택이 뒤따르는 녹색기업 인증서를 스스로 포기했다.

현행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등에 따르면 녹색기업 인증을 받게 되면 ▲정부 및 지자체에 의한 사업장 지도 점검 면제 및 배출시설 허가를 신고로 전환할 수 있고 ▲사업장 환경개선에 소요되는 자금 및 기술지원에서 우대를 받는가 하면, ▲글로벌 시장 공략에 유리한 친환경 마크 등을 받을 수 있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이런 이점을 알면서도 지난 10년 간 보유해왔던 인증서

■ 기아차 광주공장 악취 민원 현황



를 지난 2013년 2월 자발적으로 반납했다. 현대자동차 울산·아산공장, 한국지엠 부평·군산공장 등 자동차 공장은 물론 삼성전자(주) 하남사업장 등 국내 유수의 189개 사업장이 녹색기업 지위를 유지하는 데 힘을 쏟고 있는 것과는 사뭇 다른 상황이다.

일각에서 기아차 광주공장이 생산량 증산을 위해 법적 기준치보다 엄격한 수준의 친환경 경영을 요구하는 녹색기업 지위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녹색기업 지위를 유지하는 데는 ▲대기·수질 오염물질 배출 농도가 규제치의 50% 이내로 관리될 것 ▲과거 2년간 환경법규에 따른 실행이 없을 것 ▲환경관리현황, 환경성 평가, 오염물질 관리현황, 환경개선계획 등을 구비해야 한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녹색기업 인증 지위는 기업들로서는 각종 혜택이 뒤따르기 때문에 갖고 싶은 매력적인 지위지만 규제 강화 측면도 있다”면서 “당시 기아차 광주공장이 녹색기업 지위를 포기한 것은 악취 민원이 늘고 규제치보다 낮은 단계의 오염물질 배출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서구 관계자도 “2013년 전통 끝에 연간 생산량이 10만대 이상 추가로 늘면서 악취 민원도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기아차 광주공장 측은 “매년 환경 시설에 수억원씩 투자하고 있으며, 민원이 제기되는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도 여는 등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이홍하씨 폭행 배경은 안팎한 채 광주교도소, 구속 집행정지 건의

광주교도소가 동료 재소자에게 맞아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76)씨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건의했다.

이씨가 한때 순천지원 재판 과정에서 보석 신청으로 풀려났다가 검찰의 항고 끝에 보석 청구 기각 결정이 내려졌던 점 등을 들어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법원의 고민도 깊어지게 됐다. 광주교도소가 합구하고 있는 폭력 배경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광주교도소는 24일 재소자에게 폭행당한 이씨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광주교도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씨 변호인은 구속 집행정지를 이날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19일 오후 7시 40분께 광주교도소 내 수용시설에서 40대 후반 동년배 재소자에게 폭행당해 뇌출혈 증상을 보이고 갈비뼈와 턱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집행정지는 중병, 출산, 가족의 장례참석 등 긴급하게 피고인을 석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 때문에 구속집행정지가 결정될지 여부가 관심사다. 이씨의 경우 이미 수차례 구속집행정지와 보석 신청을 낸 바 있다. 이씨는 지난해 3월에도 광주교도소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 1월에는 건강상 이유를 내세워 법원에 보석(保釋)도 신청한 바 있다. 다만, 법원은 이씨의 보석 청구 기각 여부, 구속집행정지 결정 등을 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교도소 측은 또 이씨가 갈비뼈와 턱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음에도, 폭력 행위 등을 밝히지 않고 있는 현행이다. 한편, 이씨는 1심에서 교비 등 909억 원 횡령에 인정돼 징역 9년을, 사학연금 관련 횡령에 대해 징역 6개월을,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과 관련해 징역 3년에 벌금 90억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세 사건을 병합한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 24일 예정돼 있다. /박지용기자 pbxer@



초등학교 개학... “친구들 다시 만나 반가워요”

24일 여름방학을 마치고 개학을 한 광주시 남구 월산초등학교 1학년 2반 학생들이 모처럼 만난 친구들과 밝게 웃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지적장애 딸 40년만에 눈물의 상봉

미국 이민 70대 귀국
순천경찰에 도움 요청
유전자 등록 의뢰 확인

지적장애가 있는 8살짜리 딸을 잃어버렸던 아버지가 40여년만에 극적으로 딸과 상봉했다.

24일 순천경찰에 따르면 지난 3월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하다 잠시 귀국한 정모(71)씨가 경찰서를 방문해 “죽기 전 잃어버린 딸을 찾고 싶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정씨는 지난 1974년 3월 당시 지적장애가 있는 8살 딸이 집을 나간 뒤 실종. 3년간 수소문에도 행방이 묘연하자 결국 딸의 사망신고까지 한 상태였다.

경찰은 정씨의 DNA를 채취해 실종아동 전문기관에 유전자 등록시

키고 유사한 DNA가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의뢰했다. 40년 전 일이지만 DNA로 실종자를 발견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유전자등록을 의뢰한 지 두 달만에 실종아동 전문기관에서 가족으로 추정되는 유전자가 있다는 연락이 왔고, 미국으로 돌아갔던 정씨는 보다 정확한 검사를 위해 DNA 검체인 머리카락 등을 국제우편으로 보내왔다.

재확인 결과 충북 음성군 꽃동네 한 지적장애인 보호시설에 있는 정모(49)씨의 유전자와 일치, 40년 만에 가슴에 묻었던 딸을 품에 안을 수 있었다.

순천경찰 관계자는 “지난 2009년에 도 정씨의 딸이 실종돼 유전자 등록이 이뤄져 아버지의 유전자와 비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故 신해철씨 사망원인 의료과실 결론... 담당의사 기소



○...검찰이 고(故) 신해철씨의 사망원인을 의료과실로 결론내리고 담당의사를 업무상과실사치 등의 혐의로 기소

○24일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안미영 부장검사)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S병원 강모(44) 원장은 신씨를 상대로 위장관 유착박리술 등 시술을 하고 나서 복막염과 패혈증 등이 발생한 징후가 있었지만 이를 무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

지 않아 그를 숨지게 한 혐의.

○...검찰은 숨진 신씨가 지난해 10월 퇴원을 앞두고 촬영한 흉부 엑스레이에서 심낭과 복부에 공기가 잔 것 등이 발견되고 혈액검사에서는 백혈구 수치가 1만4900으로 나와 복막염을 지나 패혈증 단계에 이른 것을 의심할 수 있음에도, 집도의인 강씨가 통상적인 회복과정으로 안일하게 보면서 결국 사망하게 됐다고 판단. /연합뉴스

간호조무사에 자궁경부암 검체 채취 말렸다면...

의료법 위반 판결... 지시한 의사도 벌금형

자궁경부암 검진 과정에서 의료용 면봉으로 검체를 채취하는 행위는 의료행위로, 간호조무사가 시술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광주지법 형사 11단독 염호준 판사는 24일 각각 의료법 위반 교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3)씨와 간호조무사 B(34)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궁경부암 검진 과정에서 이뤄진 세포 검체 채취 행위는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며 “의료인 자격이 없는 간호조무사인 B씨가 의료법 위반 행위를 했고 의사 A씨가 의료법 위반 교사 행위를 했다는 점은 다툼 없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A씨 등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지역 한 병원에서 자궁경부암 검진을 위해 간호조무사 B씨에게 세포 검체 채취를 지시하고 B씨는 지시에 따라 의료용 면봉을 이용해 세포 검체를 채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수완지구 상가 매매
(4층중3층 / 즉시입주가능)

85평

모아 A.P.T 앞 (6천세대)
상권 밀집지역
월수익 180만
매가 3억 8천만

보 3천 용 2억5천만

상가매매

① 상무지구 정연오피 상가 (상무지구 한국은행앞)
→ 매가 1억3천만 (보 1천, 용 4천5백만)

② 광산구 월계동 1층 40평(1층 가격 최고 저렴)
→ 매가 1억 5천만(보 800만, 용 8천만)

010-6834-4800
010-6832-9700

2층상가건물매매
(나주 삼영동)

나주 혁신도시 10분!
나주역 2분!
영강고교
영강초교 정문앞

1층6칸 올림대, 2층 주택가능

월수익 200만 매매가 2억9천만

① 북구 우산동 안보회관 상업지건물 7층사우나건물 월수익 950만 매매가 1억4천5천	⑤ 상무지구 정연오피 3층(30평) 월수익 70만 매매가 1억2천500만
②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23평) 월수익 45만 매매가 9천만	⑥ 동구 수기동제일오피(45평) 월수익 60만 매매가 1억1천만
③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13평) 월수익 33만 매매가 5천만	⑦ 광양 상아아파트15평 (상가밀집지역) 매매가 4천만
④ 서구 쌍촌동 대우파크 2층(11평) 월수익 32만 매매가 3천800만	⑧ 상무지구 중흥A.P.T.(33평) 매매가 2억7천만

010-6834-4800
010-6832-9700

상가건물매매 (북구 우산동 구호전 사거리)

월수익 950만(1년 1억2천만)
사우나 직접 운영시 **직접 운영시 1800만**

7층 건물

- ✓ 1층 커피숍 입점완료
- ✓ 2~5층 사우나, 주택
- ✓ 6~7층 설계사, 건설사

건물 올 리모델링!

매매가 14억 5천 (보 2억, 용 6억)

010-7384-7800 / 010-6670-9800